

펀드매니저가 들려주는

# 신영주니어 경제박사

증권 투자신탁(주식)의  
펀드운용 이야기

2021. 01. 27. ~ 2021. 04. 26.



#### 주니어경제박사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3개월 동안 여러분의 펀드는 +0.19%의 수익률을 보였어요. 같은 기간 +2.26%를 기록한 비교 지수 대비 2.07%p만큼 다소 아쉬운 성과를 기록하게 되었어요.

지난 3개월 동안에 글로벌 주식시장은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코로나의 감염 확산은 여전히 국지적으로 지속되었지만 백신 보급 또한 빠르게 이루어짐에 따라 선진국 중심으로 확산세는 잦아드는 모습이었고 이는 증시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어요. 또한 생활의 기반이 되는 인프라(ex 도로, 철도, 전기, 가스 등) 재구축과 관련된 부양책이 미국에서 추가로 발표된 점, 대부분의 기업들의 1분기(1월 1일~3월 31일) 실적이 작년 1분기 대비 높아진 점도 증시 성장에 많이 기여하였답니다. 다만, 갈수록 경기 회복세는 가팔라져 다양한 부문(예, 주택, 화학, 반도체, 자동차 등에서 수요는 빠르게 늘어나는데 이를 제 때 공급함에 있어 필요한 생산 재료 확보에 일부 차질이 빚어지다 보니 원자재 값은 급등을 이어나갔고, 이는 물가 상승을 촉진하게 되었어요. 물가가 가팔라지게 오르면 화폐 가치는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각국 중앙은행은 시중의 통화량을(유동성) 축소하는 정책의 사용을 고민하게 되고 이는 곧 증시에 유입될 추가 자금을 대한 기대를 꺾어 증시에 안좋은 영향을 준답니다. 그래서 지난 운용 기간 증시의 변동성이 위아래로 커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어요.

지난 3개월 간 주니어경제박사 펀드는 운용에 있어 다음과 같은 부분에 집중했습니다. 코로나 확산 이후 사람들의 대면 활동이 줄어들고 비대면 활동(ex 온라인 기반 상호 교류, 취미 활동 등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수혜를 본 기업들의 주식 비중을 줄였습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백신 보급이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다시 대면 활동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방향성이 뚜렷해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경제 재개에 따른 수혜 업종 중 백화점, 5G, 반도체 등의 업종을 긍정적으로 전망하여 비중 확대하였습니다.

## 펀드 성적을 살펴 볼까요~!

<주니어경제박사 수익률 및 펀드 규모> 기준일 : 2021.04.26.

(비교지수 : KOSPI 90.0% + CD91 10.0%)

**+ 0.19 %**

**최근 3개월 수익률**

주니어경제박사 펀드의 최근 3개월 수익률은 (2021. 01. 27. ~ 2021. 04. 26.) +0.19%입니다.

비교지수 수익률이 +2.26%인 것에 비하면 2.07%p만큼 낮습니다.

최근 1년 수익률

**+ 83.64 %**

비교지수 : +61.91%

비교지수 대비 : +21.73%p

최근 3년 수익률

**+ 33.53 %**

비교지수 : +27.81%

비교지수 대비 : +5.72%p

최근 5년 수익률

**+ 70.48 %**

비교지수 : +54.12%

비교지수 대비 : +16.36%p

# 신영주니어경제박사

신영자산운용

www.syfund.co.kr

증권 투자신탁(주식)의 펀드운용 이야기

28,906백만원

순자산 총액

-4.88% ↓

증감률

주니어경제박사 펀드 투자 바구니에 얼마나 많은 돈을 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순자산 총액이에요.  
순자산 총액이 3개월 전 보다 4.88% 줄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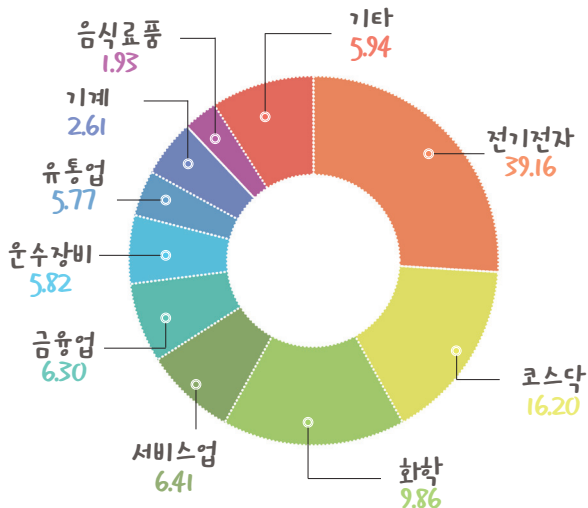
※ 증감률이란? 우리 펀드가 3개월 전보다 얼마나 커졌는지 혹은 줄었는지를 말해줘요.

## 우리 펀드는 어디에 투자되고 있을까요?

우리 펀드의 투자바구니에는 주식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펀드매니저가 여러 회사를 직접 방문하면서 평가하여 앞으로 좋은 수익을 가져다 줄 회사를 신중하게 골라내어 우리 펀드의 투자바구니 안에 담았어요.

## 우리 투자 바구니 안에는 어떤 주식이 있을까요?

### <업종별 투자비중>



### <주요 투자 종목>

(기준일: 2021. 04. 26. 단위: %)

1위	삼성전자	22.66	6위	삼성SDI	2.92
2위	LG화학	5.84	7위	SK	2.71
3위	서진시스템	5.19	8위	씨에스윈드	2.54
4위	SK하이닉스	4.64	9위	NAVER	2.39
5위	현대차	3.36	10위	현대모비스	2.31


2021년 4월 26일 기준으로 주니어경제박사 펀드는 전기전자 업종을 가장 높은 비중으로 담고 있어요. 종목은 삼성전자, LG화학, 서진시스템 등의 종목을 높은 비중으로 들고 있습니다.

# 신영주니어경제박사

증권 투자신탁(주식)의 펀드운용 이야기


 신영자산운용  
www.syfund.co.kr

<주니어경제박사 펀드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을 알아보까요?>




**서진시스템**

친환경, 경량화의 대표 소재인 알루미늄을 주요 원재료로 사용해 응용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에요. 크게 반도체 생산 장비의 구동장치, 5G 관련 통신 장비(중계기 등), 휴대폰 메탈케이스 등을 생산 및 납품하고 있습니다.



**삼성SDI**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리튬이온 2차 전지와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등을 생산/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씨에스윈드**

풍력 발전기를 고도가 높은 곳에 설치할 수 있게 하는 풍력발전 타워, 풍력발전 타워용 알루미늄 플랫폼 등을 생산/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요.

## 투자자산매매내역을 알아보까요?

<매매주식규모 및 회전율> 기준일 : 2021. 04. 26.

(단위 : 백만원, %)

**매수**

수량	금액
32,472	1,996

**매도**

수량	금액
38,336	3,134

**매매회전율**

해당기간	연환산
11.34	46.00

<최근 3분기 주식 매매회전율 추이>

(단위 : %)

2020.07.27. ~ 2020.10.26

**20.56**

2020.10.27. ~ 2021.01.26

**17.24**

2021.01.27. ~ 2021.04.26

**11.34**

### 주니어경제박사의 경제열전 - 주주환원 이야기

지난해 36조 번 삼성전자, 특별배당으로 13조 쏜다 (출처 : 한국경제)

SKT, 주주가치 극대화 '사활'.. 자사주 2조6천억 전격 소각 (출처 : 파이낸셜 뉴스)

안녕하세요 주니어경제박사 여러분. 이번 경제열전에서는 친구들이 좋은 기업에 투자하기 위해 고려하면 좋을 만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해요. 투자 대상 기업이 주주가치를 높이기 위해 '주주환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지 여부입니다. 여기서 '주주'의 뜻은 주식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하며, 특정 기업의 주식을 일부 소유해 주주가 된다는 것은 해당 기업의 일부 소유권을 가지게 된다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예를 들어, 치킨 맛이 좋기로 소문난 SY치킨이라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전국적으로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SY치킨이라는 회사는 전국적으로 퍼져 있는 가맹점의 주인들에게 치킨을 판매하기 위해 필요한 원재료(닭고기), 소스 등을 판매하고 신메뉴 개발 및 브랜드 관리 등의 제반 업무를 하고 있어요. SY치킨 경영진은 가맹점을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확장하고 싶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사업 확

장에 필요한 자금이 크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럴 때 SY치킨 경영진은 자금을 끌어오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어요. 은행에서 필요한 자금을 빌릴 수도 있지만, 회사의 잠재 성장가능성에 동의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식을 발행해주고 투자금을 받을 수도 있어요. 해당 주식을 사는 사람들에게 회사가 추후에 돈을 많이 벌게되면 그 이익을 함께 공유하겠다는 취지인 것이죠. 물론 돈을 못 벌게 되고 회사가 주식시장에서 인정받는 가치가 떨어진다면 투자자들은 돈을 잃게 되는 것이구요.

이렇게 주식을 발행하여 투자자를 모집해 주식회사가 된다면, SY치킨은 더 이상 SY치킨을 설립한 사람의 온전한 소유가 아닌 주식을 보유한 다수의 개인(혹은 법인) 소유가 되는 것이예요. 다만, 주식의 보유 비중은 SY치킨 설립자 및 관계자들이 월등히 높겠죠? 그리고 보유한 주식의 비중이 높기에 해당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영향력을 크게 행사할 수 있는 것이랍니다.

돌아와서, 특정 주식회사에 투자를 고려한다면 해당 기업이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버는지 파악하고, 해마다 버는 돈은 유의미하게 늘려갈 수 있을지, 경영자는 나름의 비전을 갖고 회사를 성장하는 방향으로 잘 이끌고 있는지 등을 고려해야 할텐데요. 이러한 주식회사의 노력은 어떻게 보면 주주의 가치를 높이는 데 궁극적인 목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업이 성장하고 주식시장에서 그 기업의 가치가 높게 평가될수록 주주들은 그 주가 상승으로부터 투자 과실을 얻을테니까요. 다만, 이런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의 성장 측면 이외의 방법으로도 주주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방법에는 크게 배당과 자사주 매입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은 기업 입장에서 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되기도 해요.

### 주니어경제박사의 경제열전 - 주주환원 이야기

지난해 36조 번 삼성전자, 특별배당으로 13조 쏜다 (출처 : 한국경제)

SKT, 주주가치 극대화 '사활'.. 자사주 2조6천억 전격 소각 (출처 : 파이낸셜 뉴스)



먼저, 배당입니다. 배당은 이전에도 소개했듯 기업이 일정 기간 동안 영업활동을 해 발생한 이익의 일부를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말해요. 대개 기업들은 벌어들인 이익 규모와 연동되게끔 배당액을 산정합니다. 이를 일컫는 용어로서 '배당성향'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기업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총 금액(매출액)에서 그 금액을 버는데 필요했던 모든 비용(원재료, 판매관리비, 이자비용, 세금 등)을 빼고 남은 순이익 중 현금으로 지급된 배당금 총액의 비율을 뜻합니

다. 예를 들어 SY치킨이 작년 순이익이 100억인데 그 중 배당금으로 10억을 주주들에게 지급했다면 배당성향이 10%인겁니다. 이 10%였던 배당성향을 향후 5년동안 20%로 늘리겠다 발표한다면 주식시장 참여자들은 해당 기업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매년 받는 배당금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되고 주식을 사고자 하는 수요가 늘어날 수 있어, 이는 주주가치에 플러스가 될 만한 소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거예요. 물론 향후 SY치킨의 이익의 규모가 일정하거나 늘어나야 의미가 있겠지만요.

또한, 특정 기업들은 매년 지급하는 주당 배당액을 유지하거나 늘리는 기업도 있어요. 매년 이익 규모는 굴곡이 있을 수 있지만 적자를 내더라도 배당 지급 금액은 줄이지 않는 것이죠. 이는 주주에게 해당 주식을 보유함에 따라 매년 현금이 어느정도 유입될 것이라는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그리고 해당 기업이 주주환원을 중요시한다는 간접적인 메시지로 읽힐 수 있다는 측면에서 주가 관리에 도움을 주기도 한답니다.

다음으로는 자사주 매입 및 소각입니다. 특정 기업의 주식을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불특정 개인들만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 이름으로도 살 수 있는데, 물론 자사의 주식을 사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SY치킨이 주식을 1,200,000주 발행하여 주식시장에 상장했고 그 중 SY치킨 법인 이름으로 주식 200,000주를 보유중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시장 참여자들은 1주당 가치를 산정함에 있어서 주당 순이익이라는 지표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순이익에서 발행주식수를 나눈 값을 뜻합니다. SY치킨이 작년에 순이익이 100억이고 주식 수는 1,200,000주이기 때문에 주당 순이익은 8,333원(100억/120만주)이 됩니다. 그런데 SY치킨이 주주가치 제고를 목적으로 200,000주를 소각시켰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주당 순이익은 10,000원(100억/100만주)으로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는 SY치킨의 주가 상승에 긍정적 영향을 줄 만한 소식인 것이죠.

### 주니어경제박사의 경제열전 - 주주환원 이야기

지난해 36조 번 삼성전자, 특별배당으로 13조 쏜다 (출처 : 한국경제)  
SKT, 주주가치 극대화 '사활'.. 자사주 2조6천억 전격 소각 (출처 : 파이낸셜 뉴스)

때로는 SY치킨이 보유중인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고 자사주를 사들였다는 소식만 나오더라도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기업에 대해 가장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내부자가 주식을 사들였다는 것은 그 회사의 주가가 시장에서 저평가되어 있다는 신호로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작년 3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주가 폭락의 시기에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의 내부자(회장, CEO, 임원 등)들은 자사주를 매입했고 일각에서는 이를 주가가 더 이상 하락하지 않게끔 방어하는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기업들의 주주환원의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최근 지속가능한 경영 및 ESG 관련 테마가 크게 떠오르면서 기업들의 주주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노력이 더욱 커졌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해당 기업을 믿고 장기간 투자함으로써 그 기업의 이뤄낸 성장의 과실을 나누는 바람직한 투자 문화를 정착하게 해주는데 일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펀드인 주니어 경제박사 펀드도 기업별로 주주환원을 위해 노력하는 정도를 투자의 중요한 기준 중 하나로 삼고 있습니다. 지속해서 성장할 가능성이 높되, 그 성장의

과실을 투자자와 적극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펀드에 해당 기업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경제열전에서 만나요!

증권 투자신탁(주식)의 펀드운용 이야기

## 우리 펀드의 운용 (부모님께)

신영주니어경제박사증권투자신탁(주식)의 최근 3개월 수익률은 +0.19%로 양(+)의 절대수익을 기록하였으나, 비교지수 수익률 +2.26% 대비해서는 2.07%p 하회하는 수익률을 기록하였습니다.(비교지수(벤치마크): KOSPI X 90% + CD91 X 10%)

### <운용경과>

3월에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1.7%대로 올라서며 14개월래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금리 급등이 밸류에이션 부담을 가중시키며 글로벌 주식시장에 변동성이 높아진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인플레이션 전망이 강화된 환경 가운데 주식시장에서는 성장주에서 경기민감주, 비대면(untact)에서 대면(tact) 테마와 금융 업종으로 스타일 전환이 가속화 되어 견조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월 중순부터 미국 상하원을 통과한 US\$1.9조 규모의 재정부양책과 인프라 법안 준비 소식으로 미 연준은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경기 회복 기대감이 다시 주식시장을 주도하게 되어 다우존스 지수는 월 말일에 사상최고치를 갱신하여 마감했습니다.

4월에도 코로나 백신 접종 가속화, 주요 경제지표의 긍정적인 수치 등으로 경기 정상화 기대감이 이어졌습니다. 물가/금리 상승 부담도 지난 분기에 많은 부분이 이미 선반영 되었다는 인식에 채권 금리까지 하향 안정세를 보여 증시 상승에 우호적인 배경이 형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 미국 증세 추진, 일본 그리고 특히 인도의 코로나 재확산 이슈 등 대외 불확실성 요인들이 유입되면서 지수의 상단은 제한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가는 코로나 재확산에도 불구하고 지정학적 이슈와 OPEC의 올해 글로벌 원유 수요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 유지 배경에 배럴 당 60달러를 상회하였습니다.

업종별로는 글로벌 철강 수요 증가, 중국 정부의 수출환급금 인하 가능성과 실적 호조로 철강 및 기타 금속, 산업재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증권 업종도 1/4분기 실적 호조 기대에 상승세를 기록했고 운송업도 글로벌 교역 정상화, 운임 수요 증가로 해운주 중심으로 상승하였습니다.

동 펀드는 향후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는 차원에서 일부 언택트 관련 성장주를 비중 축소하였고 백화점, 5G, 반도체 등 경제 재개(re-opening) 관련 종목 및 주된 인프라 관련 종목들로 교체 중입니다. 전반적으로 저평가 또는 조정 받았으나 펀더멘탈에 변화 없는 섹터 비중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증권 투자신탁(주식)의 펀드운용 이야기

## 우리 펀드의 운용 (부모님께)

### <투자환경 및 운용계획>

현재 시장センチメント는 다소 불안정하다고 판단합니다. 전세계적으로 제 1사분기 실적 서프라이즈를 내고 있는 분위기에 누가 더 큰 서프라이즈인가를 재고 있고, 여러 업종 공급망에서 주요 원재료 공급 부족도 앞으로 최소 6개월은 지속될 전망까지 감안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올 여름에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본격적인 경제 재개(re-opening) 시기가 근접하고 있고 미국을 비롯한 몇몇 국가는 점차 여행 및 레저 활동 제한을 완화해주면 서 생기는 기대감 가운데 다시 한 번 성장주와 가치주 사이의 로테이션이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경기 선행지수의 상승 이후 시차를 두고 물가를 포함한 후행지수 반등 시기 도래로 원가 대비 상품가격 간의 마진이 취약해질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물가 상승에 따른 금리 변동성 확대 역시 부채 부담이 높은 현재를 주의해서 볼 필요는 있으나 경기 개선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증시의 급격한 하락보다는 변동성 확대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합니다.

금리에 대한 논쟁은 당분간 지속하겠지만 이익 전망치가 상향되고 있는 국면에서 더 중요한 동력은 실적 기대치를 충족시켜주는 경제 활동이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단순 순이익 보다 영업활동 현금흐름의 개선 폭이 큰 기업은 이익의 지속성이 밝다는 측면에서 반도체, 자동차, 철강, 통신 등 대형주 같이 풍부한 유동성을 보유한 기업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오프라인 리테일, 여행, 경기민감 소비재도 역시 경제 재개(re-opening) 기대에 이어 실적으로 가장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업종들에 여전히 기대가 높습니다.